

침묵의 장기, 간

얼굴색 변화 · 만성피로 · 피곤하고 맥 없음은 간의 신호

간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이다. 하지 만 웬만한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 이 잘 안 되는 장기이기도 하여 일명 침묵의 장기라고도 말한다.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간이 우리 몸에서 하 는 일들은 무엇이고 또 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.

첫째, 간은 해독과 배설을 담당한 다. 간은 우리 몸 안의 천연 정화조 역할을 하는데 간이 걸러내는 것들 에는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와 섭취 한 약물, 그리고 몸에서 생성된 호

르몬 등이다. 우리 몸으로 들어온 독 소 중에서 가장 많 은 양은 음식을 통 해 들어온다. 이때 독소의 양이 많으면 간에 과부화가 걸려 서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. 간이 제 기능을 못해서

지용성인 독소가 그대로 유지되면 뇌나 세포막, 혹은 생식기에 가서 붙 게 된다. 간이 나쁠 때 집중력이 떨 어지고 쉽게 피로한 것도 이 때문이 다. 한편 약물이나 독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세포 자체가 견디지 못 하고 손상을 받는데 따라서 신경안 정제나 항염제, 항생제와 같은 약물 을 많이 섭취하면 간이 무리하게 해 독작용을 해서 간에 무리가 올 수 있 다. 또 활성산소는 독소이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데, 수치가 높 아지는 만큼 간이 할 일이 많아져서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다.

둘째, 간은 각종 영양분의 합성, 분해. 저장을 담당한다.

간은 나쁜 물질을 걸러내는 한편 간에 결집한 영양소를 이용해서 새 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영양소

를 몸 곳곳에 배분하기도 한다. 이처 럼 간은 우리 몸에 정말 너무나도 중 요한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간을 지 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

간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 을 쉬게 하는 것이다. 하지만 제때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면 간 속의 영양소들이 해독에 필요한 만큼 모 일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이때부터 간 은 밀려드는 독소를 해독할 힘을 가 지지 못하게 되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. 즉.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다.

우리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는 간이 보내는 신호를 잘 읽는 것이

> 중요한데 얼굴색 의 변화나 피부 트러블 등은 간 에서 보내는 신 호일 가능성이 높다.몸이 피곤 한 것은 간과 밀 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는데 음

> > 식에서 섭취한

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분해 또는 합 성해서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간의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은 피곤해지 고 맥이 없고 생활하는 데 지장을 받 게 된다. 또 간이 상하면 우리 몸에 서 여러 가지 장애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다. 간 기능이 상하거 나 약해지면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이 외에도 간에 문제가 생 겼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배가 아프거나, 음식을 섭 취하지 않았는데도 비정상적으로 복부가 팽창하거나, 정상적인 습관 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체중 이 감소하거나, 또는 가슴과 어깨에 이유 없이 통증이 있을 때는 한 번쯤 간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.*

이승우 기자

: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〈28회〉

이긴자 일대기

인자가 임할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갯불이 번쩍인다

5절: 영적 동정녀인 다섯째 천사와 둘째 아담인 일곱째 천사

1) 두 천사의 생수체험 2) 이한 검의 안찰과 흰돌 위에 소사

3) 은혜 간직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 4)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이란

6절: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 1) 빛의 몸이 인간의 육신으로

2) 다섯째 천사를 점령하고자 하는 하나님

4) 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 책이란

(전호에 이어서) 실상은 요한계시록 의 이기는 자는 만민들을 구원할 구세 주를 지칭하는 것으로, 무엇을 이기는 가에 대한 물음의 정답은 '나'를 이기 고 '마귀'를 이기고 '사망'을 이기는 것입니다.

경이롭고 처음 듣는 생소한 말씀이 겠지만. 오늘날 성경은 마귀에게 지는 보통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 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 고 또 보아도 성경 속에서 죄를 지으려 야 지을 수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. 마귀한테 지는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고로 당 연히 성경에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논하 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. 다만 성경 고린 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에는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하리라는 말 씀에 근거하면, 앞으로 마귀를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이 오시면 그제야 그분 의 새로운 진리말씀으로 채워진 온전 한 참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온전한 하나님은 마귀를 이기는 하 나님이요 진리의 성령이기에, 기존 성 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죄 짓지 않는 비결과 마귀를 이기는 비결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게 되어 있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비로소 성경을 상 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 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

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'영생이 있기에 상고하는 성경책'은 기존의 성경66권 이 아니라 '나'를 이기고 '마귀'를 이기 고 '사망'을 이기는 구세주 하나님의 온 전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참성경 을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.

〈6절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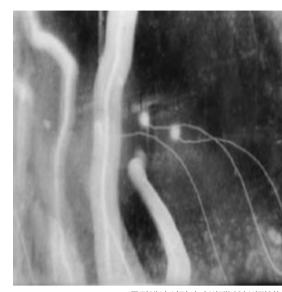
하나님과 마귀의 관계

마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 가하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육천 년 전의 선악과 사건이 발생하던 때입니다. 하 나님을 능가하는 대표적인 마귀의 두 가 지 지혜 중에, 첫 번째 지혜는 모방력으 로 하나님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지혜이 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는 사로잡은 하나님을 마귀 영옥(靈獄)에 가두고 인 간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마귀 영이 본 래 '나' 라는 주체의식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자리를 빼앗아 대신 앉게 되었지만 마귀 스스로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'나'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 영이라는 사실조 차 알지 못하게끔 겹겹으로 잠금장치를 한 지혜입니다.

1) 빛의 몸이 인간의 육신으로

초창기 남산 집회를 비롯한 전국각지 에서 천막집회를 할 때마다 다섯째 천 사 영모님이 단상에 서시면 번갯불이 번 쩍번쩍하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성 경 마태복음 24장 27절에 "인자가 임 할 때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갯불이 번 쩍인다."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'오 실 인자'가 바로 영모님일 것으로 알았 던 것입니다. 그런데 실상은 구세주가 되는 일곱째 천사가 '오실 인자' 이며 다 섯째 천사 영모님은 '오실 인자' 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것입니다.

천막집회 장소에서 번쩍이던 번갯불 의 정체는 하나님 본체에서 방출되는 성 령의 빛인 것입니다. 앞으로 하나님께



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갯불이 번쩍이는

서 일곱째 천사의 마음속에 온전히 점 령하여 '하나님 안에 일곱째 천사가 있 고 일곱째 천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경 지'에 다다를 때, 그때서야 일곱째 천 사의 몸은 빛의 몸으로 화하여 영원무 궁토록 희락 가운데 살게끔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.

영원 전부터 성스런 빛의 몸으로 존 재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육천 년 전에 마귀에게 사로잡힘으로 써 아담이라는 남자 사람과 해와라는 여자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. 다 만 사람 속에 양심이 성스런 빛으로 남 아 있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.

하나님을 점령한 마귀는 성스런 빛 의 몸을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몸으로 만들었는데, 이 마귀의 몸을 하 고 있는 것이 인간의 육신인 것입니다. 다행히도 인간의 육신이 백 퍼센트 마 귀 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유한한 생명 력으로 약화된 하나님의 몸도 한데 뒤 섞여 있는 것입니다. 인간의 육신이 지 배하는 마귀 몸과 지배당하는 하나님 의 몸으로 병존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 근본 배경은, 지금으로 육천년 전에 빛 이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점령당할 때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였고 또한 하 나님의 생명력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 문에 단 한순간에 사망의 영이 되는 마

귀가 하나님의 빛을 꺼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 다.

그리하여 마귀가 비록 하나 님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였지 만 그 사로잡는 순간에 하나 님의 무한한 생명력을 단번에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, 마 귀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마귀의 영옥(靈獄)에 가둔 상 태에서 씨줄날줄로 쪼개져 각 양각색의 만물로 분열되었던 것입니다. 만약에 마귀가 스 스로 분열되지 않는 가운데 이슬성신의은혜가내리는사진 사로잡은 하나님의 영을 완전

히 죽이려고 했다면, 죽이는

데 걸리는 시간이 수억 만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자칫하면 사로잡힌 하 나님으로부터 역습을 받을 수 있는 공 산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.

물론 분열의 신이 되는 마귀가 사로 잡은 하나님을 육천 년이라는 최단기 간에 멸절시키기 위해 스스로 쪼개지 는 방법을 택하였는데, 이런 방법이 전 적으로 마귀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작 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왜냐 하면 마귀가 하나님을 사로잡은 상태 에서 산산이 쪼개져 만물로 분열될 때, 마귀 또한 하나의 덩어리 상태에서 씨 줄날줄로 쪼개지는 상태에 처하게 됨 으로 그 악령의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 었기 때문입니다.

한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위(二位; 아담과 해와)를 내주어 일 위(一位)의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되 어 긴긴 세월동안 숨어 지내야 했습니 다. 일위(一位)의 하나님은 육천년이 차기 전에 잃어버렸던 이위(二位)를 되 찾아 삼위(三位)를 회복해야만 전지전 능한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 니다. 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잃 어버렸던 두 씨를 찾아 이긴자로 키우 는 역사가 곧 에덴동산 회복의 역사라 고 인봉되어 있는 것입니다.*

박한수

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 면 완성이 된다.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.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 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 다. 그래서 '21일만에 성도하기'라 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. 필자는 21일 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 게 알려줄 것이다. 그대로 따라만 하 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. 많은 관심을 바란다. - 편집자 주

성불의 길은 바보가 아니면 갈 수 가 없는 길이다. 바보가 되어야 이 길 을 갈 수가 있다. 그래서 생미륵불은 바보소리를 들으면서도 항상 모른 척하고 상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생활을 했다.

성불(成佛)의 길은 바보가 되어야 가는길

한 일례로 바른 수행으로 존경을 받던 한 수피(이슬람 신비주의자)가 있었다. 그의 명성을 듣고 어떤 사람 이 그를 시험하고자 집으로 초대하 였다. 수피가 당도하자 그 사람은 그 에게 되돌아가라고 하였다. 수피가 몇 발짝 돌아서 가자 그는 다시 그를 되불렀다. "다시 오시오!" 다시 오자 그는 또 "돌아가시오!", "다시 오시 오.", "되돌아가시오!", "다시 오시 오!", "가시오!", "오시오."… 이렇게 수십 번쯤 하고 난 뒤에야 그는 수피 의 인내와 됨됨이에 감복하여 무릎 을 꿇었다.

"당신이야 말로 진실로 제가 찾던

21일 만에 성도(成道)하기 〈14일째〉

스승이십니다." 그리고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심히 무례했음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. 그러자 수피가 드디 어 입을 열었다. "난 당신의 말씀을 통 모르겠소이다. 난 그저 잘 훈련된 개처럼 행동했을 뿐이오. 개도 부르 면 오고 쫓으면 가지 않소? 이런 행 동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

그래, 이래야만 한다. 소위 마음을 좀 닦았노라고 하는 이들이라면 최 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거다. 누가, 그 무엇이 나를 흔들어대도 요 지부동의 상태, 여여(如如)한 나무와 도 같은 무심(無心), 이것이야말로 선 수행의 과정 중 가장 마지막 경지 인 입점수수(入點垂手), 즉 부정을 거친 긍정에 이르고 나서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인 것이다. 자신을 비우 는 완전 무아(無我)의 경지, 이것이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.

'나' 라는 것은 너무나도 깊이 뿌 리가 박힌 죄인고로 너무나도 겹겹 이 생명을 감싼 사망인고로 온전히 나를 벗어던지기란 어려운 일이다. 겉옷만 벗은 채 나는 옷을 벗었노라 고 외치는 자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 가 머리만 밖으로 내민 채 나는 자유

함을 얻었노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.

자신을 비우는 완전 무아(無我)의 경 지에 이른 자는 바보와 같다. 바보는 '나' 라는 자존심이 없는고로 '저 놈은 왜 설거지 안 해!', '저 놈은 왜 화장실 청소를 안 해!', '저 놈은 왜 집 앞에 청 소를 안 해!' 이런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몸에 밴 희생 으로 누구나 힘들어 하는 일과 하기 싫 어하는 일들을 아무런 말없이 누가 보 든 안 보든 척척 해치우는 것이다. 그래 서 생미륵부처님께서는 청소하는 일은 자신 속에 죄를 깨끗이 정화하는 일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.

바보가 되어야만 가는 이 길은 철저히 나 자신을 쳐 없애고 부수고 버려야

바보가 되어야만 가는 길. 이 길은 많 은 욕망 중의 하나로 선택한 길이 되어 서는 안 된다. 머리로 계산하며 순간순 간 판단하며 상황에 따라 한 발을 내딛 었다 뗐다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것이 다. 이 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 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. 그러나 부처님 (하나님)과 함께 사는 삶이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현재의 삶 이다. 즉 이제그대로의 삶이다. 미래를 계획하며, 부분을 걸고 전체를 얻으려 하는 도박이 결코 아니다.

그러므로 이 길을 무엇인가를 얻으려 는 행로가 아니라, 오히려 철저히 버리 려는 길이다. 나 자신을 쳐 없애고. 부수 고, 버려서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만 하 는 길인 것이다. 매 순간마다 나의 부분 이 아닌 내 생명 전체를 걸고 가슴깊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부처님(하나님) 께로만 나아가야 한다.

진리란 우리가 온 몸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해야 할 삶의 방식이요, 나의 존재 방식인 것이지, 머리로 생각하고 비교 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.

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려 면 먼저 옛 사람인 내가 철저히 죽어지 고 없어져 버려야만 한다. 씨앗을 부리 기 전에 농부가 밭을 새롭게 정리하듯 우리가 마음 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기 전에는 어떠한 진리의 씨도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는다. 항상 진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. 우 리가 항상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전체 적인 핵심을 놓쳐버린다.

생미륵부처님은 죄가 들어 있는 인간 들에게서 전부 그 죄를 뿌리째 뽑아낸 후 그 다음에 진리의 신이 되는 하나님 의 신을 심어가지고 전부 하나님(부처 님)을 만드는 자이다. 그러므로 우리가 생미륵부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내 생명 전체를 걸고 가슴 깊이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 음 자세가 필요하다. 그래야 마음 문을 연 곳으로 부처님의 진리의 신이 잠자 리처럼 날아 앉게 되어 결국 진리의 신 이 씨로 뿌려져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될 때, 불생불멸(不生不滅)의 완성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.

바보가 되었다는 것은 나무처럼 감정 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

생미륵불께서는 나무가 되어야 성불 할 수 있다고 하신다. 감정 자체가 죄 요. 감정 자체가 바로 마귀 영이라는 것 을 생미륵부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 있다. 그런고로 인간의 탈이라는 것

은 바로 감정(感情) 자체라는 것이다. 생미륵불께서 밀실에서 마지막 연단 을 받을 때,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이 죄 가 되는 줄 모르고 좋은 일에 좋아하니 까 '좋아하는 음란죄' 를 범했다고 천길 만길 아래로 떨어진 사실을 간증하신 바 있다.

그런고로 내가 좋아해도 음란죄요. 내가 슬퍼해도 음란죄요, 이제그대로 내가 가족을 생각해도 음란죄요. 내가 나를 의식해도 음란죄요, 과거를 생각 해도 뒤돌아보는 음란죄요, 미래를 예 산해도 예산하는 음란죄라고 하는 것을

가르쳐 주어 중생들로 하여금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찬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.

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승리제단 에 일 년이고 이 년이고 나오면 성질이 나지 않고 신기하게도 화도 나오지 않 는데 그 이유가, 음란죄가 뭔지 알고 죄(罪=감정)를 짓지 않는 즉 감정이 나 오지 않는 정결한 피로 변했기 때문이 다.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감정 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품고 사니까 이런 마음에 의해서 부처님의 피로 변 하는 것이다.

그런데 화나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 이기에, 마귀의 피가 작용을 해서 화 가 나는 것이지. 마귀의 피가 작용하 지 아니하면 화가 나질 않게 되어 있 다. 그러기 때문에 승리제단에 오래 나오면 화가 나지도 않고. 이제그대로 노여워하지도 않고,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진다. 그래서 어떤 사람은 "승리제단에 나가더니 바보가 된 것 같다." 하는 말을 하는 수가 있다. 실 질로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다. 화를 내야할 때에 화 를 내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, 특이한 사람 의 마음인고로 바보라고 하는 것이다. 승리제단 오래 나오면 신경질이 안 나 오고, 화가 나오지 않는다. 그것은 바 로 피가 변했다는 증거이다.*

박태선 기자